

대립 제 3 주일  
자 선 의 날

기도서 217면 (B해)

제1독서 : 이사 61, 1-2a. 10-11

제2독서 : 1베살 5, 16-24

복음 : 요한 1, 6-8. 19-28

# 숲 정 이

친 주 교 전 주 교 구 흥 보 국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제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요한 1, 26-27).

□ 강 문



## 선거를 앞두고

김 의 철 신부

16년만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정부의 선택권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의 민주화 투쟁이 얻어낸 결과이다. 노도와 같은 민주화의 물결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어 4·13 호헌조치에서 국민에 대한 항복선언인 6·29선언을 낳게 했다.

민주화는 국민 모두의 공통된 염원이다. 이 시대에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길은 오직 민주화의 길이 아닌가 한다. 다시는 이 땅에 독재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도덕성과 정통성 시비로 반목과 분열, 날카로운 대립을 가져와서도 안된다. 그러기에 향후 정국을 주도할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는 민주화로 가는 역사의 전환점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선거에 빠지지 않고 투표하여 귀중한 주권을 행사해야 하겠다.

투표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 중반전의 열기는 고조되어 도심 한복판에서 시골 장터에 까지 가두 유세방송 차량이 떠들썩하게 지나가고 사람이 모인 곳이면 의례 후보자에 관한 얘기로 열을 올리기도 하고 설전을 벌리기도 한다. 각 정당에서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함으로써 대세를 굳히려 하고 부동표를 흡수하기 위해 마지막 득표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을 그대로 실감나게 하는 요즈음이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금전살포, 온천관광, 폭력사태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민주화는 형식적인 선거가 아니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패자 및 도저히방의 취약점을 이용한 부정 선거는 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이며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결전의 날은 다가왔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주체적 운명을 선택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모쪼록 이번 선거가 누구라도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지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대통령은 억눌린 자와 묶인 이를 풀어주고 쫓겨 마음을 싸매주고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하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한뼘의 응어리를 풀어 화해와 대동단결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었던 한다.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역사의 분기점이 될 이번 선거로 세계적인 인물을 부상시켜 보자!

(여산성당 주임신부)



## 망할 놈의 인정

우리 민족은 참으로 정이 많은 민족이다. 고구마 몇 개를 찌도 혼자서는 먹지를 않는다. 열집 담니머로 음식을 건네주는 아름다운 정경들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 얼마나 흐뭇한 모습인가? 주막집에 앉아서도 혼자서는 술 한 잔을 못마셔서, 밥을 사거나 지나가는 친구들을 불러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옛부터 우리 어른들은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은 자꾸만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나누어 먹는 것은 고사하고, 기회만 있으면 공짜로 얻어먹을 궁리를, 상대방을 홀탕 벗겨먹을 연극을 하고 있다. 선거철이 되니 더욱 그러한 모습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어느 후보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일당을 받기 위해서 유세장에 나간다고 신문들은 적고 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지어는 유세장 동원에 팔려 나가는 것이 대학생들의 신중 아르바이트까지로 등장했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아니 어처구니가 없다.

할머니더러 누구를 찍겠느냐고 여쭙어 보았더니, 손자더러 하는 말씀이 선물 가져다 준 사람에게 찍겠다고 하시더라.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더니, 신성한 주권행사가 몇푼의 돈에 의해서 좌우된다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풍토가 아닐 수 없다. 이것도 인정많은 우리 민족성이 안고 있는 나쁜 것 중의 하나인가? 하기가 돈쓰는 사람도 이런 심리를 이용해야 본전을 건지기는 할테지만...

우리 민족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대통령 선거일이 바짝 앞으로 다가왔다. 어실뿐 인정으로 나라일을 망쳐서는 안되겠다. 참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바쳐 일하고, 우리를 주인으로 모실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겠다. 선거는 양심과 관련되는 국가 대사이다. 죄짓지 말자.

## 숲 정 이 산책



사랑을 나누시다

# — 우리의 견해 —

##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우리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실현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어두운 과거로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26년간의 불행한 역사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래 10월유신, 12·12사태, 광주사태로 이어져 왔다. 다행히도 이 역사는 지난 6월의 시민항쟁에 의하여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중대한 이 시점의 우리의 처지가 결코 순탄하지 않은 않다. 이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이 시대에 요청되는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 역사의 불행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권력의 출현에서 비롯되었다. 5·16 이후 계속되어온 군부독재는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한다는 구실로 그 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여하한 명분으로도 수단이 그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그것은 악순환의 계속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우리의 역사는 정당한 수단과 방법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2. 오는 12월 16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16년만에 치루는 직접선거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 선거 양상을 보면 우려되는 바가 한 들이 아니다.

그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선거제도 그 자체의 문제이다. 85만명이나 되는 부재자투표가 선거참관인 없이 치루어지는 점은, 아무리 군사기밀 보안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민주선거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투표과정에서의 참관인들의 역할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투표과정에서의 공정성에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선거 후에도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무서운 불씨를 던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집권당에게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불합리한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은 운영에서 그 묘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부정선거와 같이 선거 중사 공무원들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비극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에게 엄숙히 경고한다.

두번째로 문제가 되는 점은 선거운동의 공정성 문제이다. 그 하나는 금전선거로 이는 이미 그 극에 달해 있다. 지나친 금전살포를 일삼는 후보는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선거 이후의 물가양등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따라서 후보들의 금전공세는 유권자들의 후보에 대한 올바른 선택 단으로 그 문제점을 해소할 길 밖에 없다. 이 외에도 일

방적인 홍보매체들의 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 그간 공정성을 잃은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유권자들이 조작된 언론에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일이 없는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

3.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대표자를 올바르게 선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한 나라 민주정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판단이 흐려질 때, 우리는 불행한 역사 속에서 신음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준을, 그가 이 나라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그 첫째 기준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진정한 민주화없이 는 안보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안정이나 경제성장은 인간이 참으로 인간답게 대접받지 못할 때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진정한 대표자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떻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표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감정도 없애줄 사람이어야 한다. 소위 지역감정이란 정치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중된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대표는 온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때 우리는 항상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다. 참으로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올바른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4.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된다. 지난 2·12 총선거 당시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 허락하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거역해서는 안된다. 참된 민주화는 이 시대의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한 표의 중요한 의미를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화에 책임을 다하자.

1987. 12. 10.

**축! 제6회**  
**글로리아 성가대**  
**정기발표회를**  
**축하합니다**  
 일시: 12월 19일  
       오후 7시30분  
 장소: 전동천주교회  
**성인회**

**유일 칼라 사장**  
 사진재료 도매  
 (구, 미미사진관)  
 류영문(가예라도)  
 김민주(가타리나)  
 83-1949·84-9740  
 전주시 다가동 1가24-1

축! 성탄  
 추리 장식품 도산매  
**전주교재문구사**  
 윤테레사  
 ☎ 84-8666  
 (국민은행 앞→남문쪽)

**토성 한의원**  
 전주 금암아파트 입구  
 전화 72-1164  
 원장 공만택(사무엘)  
 박순실(라파엘라)

“내 한표, 잘 찍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군부 세력에 의해 지배 당하지 않으며, 미국의 내정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소수 독점 재벌만을 위한 정권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보장됨으로써 이 나라에 진정한 인권과 평화와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돈 몇푼에, 권력의 회유에, 하찮은 물품에 현혹되어 진정한 민주나라 건설에 중요한 몫인 내 한 표의 권리가 유린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 마디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생각하여 잘 찍자!

천호 천주교 공원묘지 분양안내

1. 분양가격 : 1기당 100,000원(공원화 묘역 조성비용 및 묘지대)  
※ 묘지에 따른 다른 비용은 본인 부담
2. 분양방법 : ①가족묘지-한가족을 위하여 수기의 묘지를 분양함  
가족은 본인, 부모, 형제, 조부모까지로 한다.  
②개인묘지(선착순)
3. 신청기간 : 1987년 12월 15일에서 1988년 2월 15일까지
4. 분양수 : 1차 1,000기(묘지의 위치는 자유 선택을 할수없고, 신청순위에따라 결정함)
5. 매장시기(이장 포함) : 1988년 5월 1일부터
6. 접수처 : 교구청내 천주교 “공원묘지 관리실”(85-0041~3)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구청 공원묘지 관리실로 문의 바람

교 구 소 식

1. 교구 재정심의회 : 15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교구청
2. 군부독재 종식과 공정선거를 위한 기도회 : 14일 오후 7시, 장소-덕진천주교회
3. 제 3기 교사학교 : 일시-1988년 1월 11일(월)~1월 16일(토)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대상-초·중·고 교리교사  
과목-청소년 이해·상담지도·교리교수법·성서 일반·심성개발·포름·테크레이션·성극  
아동심리 접수-87년 12월 30일(수)까지 교육국 접수순 70명(85-0041~3)
4.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 15일 오전 10시  
①교육내용-생식생리와 결핵관찰법 슬라이드 교육  
②대상-미혼자, 임신이나 피임을 원하는 분  
③장소-가톨릭센터, 평협회관 2층 행복한 가정운동(85-5098)  
※ 개별지도로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함.
5. 전주지구 소년 꾸리아회의 : 13일 오후 1시30분-전동천주교회 사제관 2층
6. 학력고사를 위한 미사 : 12월 20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요심이 (748) 김병오

돈으로 유세장에  
사람을 동원한 후보는  
찍어 주지 않습니다!

권력을 휘둘러  
국민을 억압했던 후보는  
찍어 주지 않습니다!

여자관계가 복잡한  
후보가 흑시 있다면  
찍어 주지 않습니다!

주는돈을 받아 썼다해도  
표는국민을 위하는 후보를  
찍어 줍시다!

□ 1분명상

구름이 짙게 낀 날은  
태양이 있다고 생각하기  
가 어렵지만,  
태양은 분명히  
구름 위에 떠있다.

-셰넬스 추기경

명동피부과의원

□ 이 전

눈을 편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보안당  센타

전주 전고앞 신호등 옆  
전화 84-4805  
윤 베 드 로

배달 탱크차 구비  
신속 배달  
**공영 주유소**  
전화 (0653) 52-8877  
52-4748  
54-6666  
대표 장현순(루가)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김안과 의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콘택트렌즈  
원장 김효열  
전은주  
(베로니카)  
전주 코아백화점 옆  
중앙성당 앞  
전화 85-3020

민음과 정성을 다하는 집  
**광명안경원**  
오거리 나정형의과 앞  
☎ 74-1123·3-6709  
박종락(조화서 베드로)  
안화동(프리스가)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 군부독재 종식과 공정선거를 위한 기도회 : 14일 오후 7시, 장소-덕진천주교회

(중암)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설민호  
사무실 5-1711 보조신부 최상범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익도

- ☆ 오늘은 자선의날: 불우이웃돕기 위한 2차현금 실시
- 1. 판공: 누락자는 저녁미사 전에 오세요
- 2. 공소판공: 15일(화) 오후 2시
- 3. 영세예정자 일종안내: 종합교리-15~17일 저녁미사 후, 면담-18일, 19일
- 4. 영세식: 다음주일(20일) 10시
- 5. 모임: 오월의 마돈나 꼬미씨움-오늘 오후 2시  
울뜨레아-16일(수) 저녁미사 후  
섬모화-18일(금) 어머니미사 후  
하늘의문 꾸리아: 다음주일 오후 2시
- 6. 애령회 정기총회: 16일 오전 11시
- 7. 청년회 정기총회: 20일 오후 4시
- 8. 평일미사: 계속 사제관 지하 소성당에서 합니다
- 9. 설체회 설체조배: 지속적인 실시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48,830원 교무금: 2,768,000원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3-1652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1. 오늘은 친교주간, 자선의날: 특별헌금 있음  
반장님 회-오늘 공식미사 후(수녀원 3층) 회의실
- 2. 차주는 선교주간: 꾸리아 회의-20일 오후 2시
- 3. 모니카회 월례회: 17일 오전 10시
- 4. 금암회: 오늘 공식미사 후
- 5. 12월 형제회: 17일 저녁 8시
- 6. 영세: 20일 공식미사 ※ 기도 부탁드립니다
- 7. 대의원 정기총회: 27일 공식미사후, 꼭 참석 바랍니다
- 8. 설탄행사 안내: 초·중·고 발표회-24일 오후 7시~9시, 성인행사-신심단체단체대회-복권추첨
- 8. 설탄 판공행사 안내: 21일(1반~25반), 22일(26반~50반), 23일(51반~63반)  
성사시간: 오후 2시~5시30분, 저녁 7시~10시까지
- 9. 감사! 신축헌금: 나인구-3만원, 김중섭-5만원, 김영완-2만원, 염상열-4만원
- 10. 금주복사: 이대용·장유진 차주: 김명수·김옥기
- 11. 금주봉헌: 김형배 부부 차주: 문치상 부부
- 12. 미사안내: 능하신 동정녀 pr 차주: 상아보탑 pr
- 지난주 봉헌금: 636,650원 교무금: 2,043,000원  
신축헌금: 140,000원

(덕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설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김낙현  
수·유 72-1222

- ◎ 오늘은 자선의날: 불우이웃돕기 특별헌금 실시
- 1. 사목회: 저녁미사 후(사목회의실)
- 2. 성화회: 공식미사 후(사목회의실)
- 3. 베드로회: 공식미사 후(2층 회의실)
- 4. 하안토니오 신부님(푸른군대 지도신부님)  
공식미사시간 성모마리아에 관한 특별강론 있음
- 5. 설탄판공행사: 17일·18일·19일 오전 10시~12시, 오후 3시~5시30분, 저녁미사 후
- 6. 설탄판공 면접누락자: 15일 저녁미사 후, 16일 오전
- 7. 예루살렘 부녀회: 16일
- 8. 군인들을 위한 위문품·위문편지: 19일까지 접수
- 9. 청년회 정기총회: 20일 저녁미사 후
- 10. 교무금: 많은 정성바람(집입원 액수 완납바람)
- 11. 통신교리 수료하신분: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설탄영세 가능함(단 6개월이상 교리하신 분에 한함)
- 12. 설탄행사 면접: 16일 저녁미사 후  
18일 어머니미사 후
- 13. 예비자 교리반: 17일부터 1월 둘째주까지 쉽니다
- 14. 금주 본당청소: 치명자의 모후-19일 오후 1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664,685원 교무금: 1,752,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 1. 오늘(13일)은 공명선거 기원미사입니다
- 2. 오늘은 자선의날: 불우이웃돕기 2차현금 있음
- 3. 10주 수요성서: 열번제시간, 주제-십자가와 부활
- 4. 나라 위한 9일기도: 8일~16일, 미사-오후 7시30분
- 5. 새 예비자 입교식: 17일 오후 7시30분(인도 바람)

- 6. 성탄반 영세자 특별교리: 20일~22일 오후 7시30분
- 7. 영세식: 23일 오후 7시30분
- 8. 판공행사 일정: 15일-동산 전지역, 16일-팔복 전지역·농원, 17일-원동·성덕·화진·원반월·기다, 18일-내동공소, 19일-학생(외부신부님 초청 성사-20일 오후 3시~9시)
- 9. 외부신부님 고백성사: 오후 3시부터, 이순성 신부님
- 10. 모임: 울뜨레아-14일 오후 7시30분, 안나회·글라라회-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회-치주 공식미사 후 2시, 동성회-19일 오후 6시
- 11. 철수: 증거자의 모후 방문: 셋별의 모후
- 12. 금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최연조 ②김순오  
차주전례: 해설-손택규, 독서-①신영우 ②전점순
- 13. 신축헌금 9일까지 납부액: 10,424,050원
- 지난주 봉헌금: 235,560원(내동 21,920원)  
교무금: 553,000원 수요성서헌금: 36,470원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목회장 소병을

- ☆ 오늘은 자선주일: 우리 이웃을 생각합니다(2차현금)
- 1. 모임: 바울로회-공식미사 후
- 2. 성기연습: 매주 수·토 저녁미사 후(어버이 및 청년)
- 3. 반미사: 14일 오후 8시-7·8반, 15일 오후 8시-9·10반
- 4. 성탄세례반 특별교리: 16일~19일 오후 7시30분
- 5. 세례식: 20일 공식미사 중
- 6. 김시합니다: 성령 기증, 신원근·김광자 부부
- 7. 50주년 기념식식판매: 독서-박천규·이정숙
- 8. 금주 본당청소: 4·5·6반 19일 오전 11시30분
- 9. 금주전례: 해설-심성기·서복자  
기도-김용수·박희순, 독서-박천규·이정숙  
차주전례: 해설-김은식·김혜숙  
기도-김대준·김순덕, 독서-최홍섭·이명숙
- 지난주 봉헌금: 224,670원 교무금: 680,000원

(순정미)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1. 일선정병을 위한 위문금품 수집합니다: 사무실에서
- 2. 오늘: ①영세예정자 피정-오전 10시~오후 5시30분  
②울뜨레아-공식미사후(꾸리실로교육 희망자 신청)
- 3. 세대주 면담: 15일~18일(오후 7시30분~9시30분)
- 4. 판공행사: 17일~19일(오후 7시30분~9시30분)  
토요일은(초·중·고 4시~6시, 일반 7시~9시)
- 5. 19일(토): 고3 수험생을 위한 미사(오후 6시30분)
- 6. 다들주: 영세식(오전 10시), 꾸리아 연중친목회(오후 2시), 요한회(공식미사 후), 초등부-교리시험
- 7. 천주교 교원요지 분양: 3면 기사 참조바람
- 8. 불우이웃을 위한 복권판매: 중·고등부
- 9. 금주 본당청소: 화-오전결하신 정녀, 토-매피의모후
- 10. 미사안내: 평화의모후
- 11. 금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기도-나병열·조현자  
봉헌-기도-임창수·권정희  
차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기도-박영근·장정진  
봉헌-기도-서창원·한정희
- 지난주 봉헌금: 454,900원 교무금: 1,589,7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76-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1. 오늘은 자선의날: 2차현금 있음
- 2. 판공행사 일정: 17일-우아아파트 구역, 18일-인후아파트 구역, 19일-아파트 외구역, 21일-우아아파트 구역, 22일-인후아파트 구역, 23일-아파트 구역, ※ 판공성사시간 오후 3시~9시, 정해진 날짜에 성사보세요 ※ 구역장님 수고해 주세요
- 3. 병자 영세체일: 18일 오전 10시
- 4. 영세식: 20일 오후 2시 유아세례: 27일
- 5. 고린토전서를 전부 읽고 와서 성사보세요
- 6. 성전신축금과 교무금(8년도)을 신입히세요
- 7. 제대회: 17일 어머니미사 후
- 8. 금주전례: 해설-이순영, 독서-기도-김병선·조명숙  
봉헌-김환창씨 부부, 안내-이진호 씨  
차주전례: 해설-최명자, 독서-기도-경화중·신봉님  
봉헌-김병선씨 부부, 안내-김환창·한갑용
- 지난주 봉헌금: 447,015원

후방  
한서  
노영  
한애  
박영  
공영